

#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난 한 주간, 깊은 말씀과 높은 찬양,  
뜨거운 기도로 주님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 새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불가능의 장벽을 넘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절망의 현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번 특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기도 응답의 현장이요, 거룩한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새벽의 은혜가 우리 생애와 가정을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저수지요, 사역의 병참기지가 될 것입니다.

The 24th SaRang Global Special Dawn Revival Worship

나아가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이 민족을 보혈복음으로 덮으시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과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향한  
거룩한 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질문에 대한 살아 있는 응답이 되고,  
이번 특새의 은혜가 평생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후 2026년 10월 23일(금), 특새 후집회 중에서

사진: SRC

**TODAY'S PRAYER** 깊은 말씀과 높은 찬양, 뜨거운 기도로 거룩한 부흥의 공진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넘어 열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 01 주여! 내 영혼의 풀 콘서트에서 한 주간 특새를 통해 받은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은혜를 높은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모든 영가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 02 제24차 가을 글로벌 특새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사, 서초동에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이 온 나라와 열방을 뒤덮는 은혜의 저수지가 되게 하옵소서.
- 03 사랑의교회가 제5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과 제7차 세계개혁주의협의회 서울총회를 섬길 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성령충만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통해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 첫째날



**올법이 못하는 것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히 10:10-20)  
김철수 선교사(GMS 순회선교사)

“그 어떤 종교나 종교적 올법이 결코 제공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 둘째날



**어두운 동굴에서도 당신은 찬란하라!**  
(시 142:1-5)  
김바나바 목사(뉴욕 퀸즈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서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의 고향 안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 셋째날



**망해도 계속되!**  
(왕하 25:27-30)  
이용규 선교사

“나라가 망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약속을...”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행 13:36)  
오스 기니스 박사(소명의 저자)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힘쓰십시오.”

**여호와께 결코 작은 신이 아니십니다**  
(시 50:12-15)  
마이크 리브스 목사(유니온 신학교 총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공허하고 지쳐 있을 때 바로 이분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들-**

데이비드 가너 목사(웨스트민-

“하늘에는 여러분을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끊임-

## 간증

김경태 집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장준 집사 “특별한 새 힘을 받고 대전으로 내려 갑니다.”

이충희 목사 “이 모든 기적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강진선B 집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정하빈 자매 “주께서 간절한 기도...



## 은혜게시판

이동훈(idhlee) 네 살 때부터 10년간 특새에 개근하며 ‘특새 소년’으로 불렸던 제가, 이제는 UC 버클리 대학생이 되어 고난의 순간마다 온 가족의 찬양이 내 마음을 동일한 은혜로 뜨겁게 할 때, 신앙의 유산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조재민(enes) 불가능, 부정적인 것을 가능하고 금기시하고, 앞으로의 삶도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규성(funkrock) 사업과 관계에 관한 기도제목을 마음에 품고 두 딸과 함께 온가족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정예진(stingiean)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황경옥(kohwangl) ‘순종’의 step을 밟을 때 길을 열어주신다. 정윤성(hemma)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 살고 싶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낀다. 추경안(i0501)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영가족들을 참으로 아끼신다는 것을 느꼈다. 정재아(hyuchanol)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인자(3163kk) 막힌 길에서 영적세례를 베풀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처음으로 도전해본 특새에서 찬양, 말씀, 기도 뭐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희영(heey00217) 어떠한 상황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정유진(bluegreentree23)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보람찬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수연(aropretty)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선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의화(euiwha)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 주신 사명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정수희(suhee) 담... 또 맞춤형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조미정(mji22412)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회복과 축복이 넘쳐나는 2026년 24차 가을 특새였음을 고백한다. 신명진(yn... 곳입니다. 정민아(aithfltree) 이제는 어떤 소망보다 남은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 없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재은(heiner68)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막힌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서재원(mcygyver)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제가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주은영(weonhos)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 순종의 스텝을 밟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최성은(engg63)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하나님 부르께 하심 감사, 오늘 하루... 맞춤형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특새에 감사합니다. 진강아(kajin)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잠들게 하시고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루종일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밤에 잠들고 아침에 깨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배주윤(june14) 가장 바쁘고 분주할 시기에 특새라는 귀한 시간들을

넷째날

는 약속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지킵니다.”



**다윗의 승부수**  
(대상 18:1-13)  
김지훈 목사(LA동양선교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내게 있는 병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는 순전한 믿음 하나입니다.”

다섯째날



**막힌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출 14:1-3; 21-31)  
노희송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짖을 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 기도의 자리로

(시 119:169-176)

스터 신학교 총장)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없이 중보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나?

(을 2:24-27)

미첼 리 목사(미국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어떤 관계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순례자의 기도

(시 134:1-3)

피터 릴백 목사(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명예총장)

“순례자는 계속 길을 걷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어록

선물 ‘새벽’이를 보내 주셨습니다.  
들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원동영 장로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김예성 목사 “이해할 수 없는 질문 가운데서 주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임바울 목사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이은평 형제 “제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을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이현주(dlguswn0831) 오늘 역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혜경(v4heart) 엄마가 부르던  
공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주영(idQma77) 매일 매일이 은혜입니다 특식 특별한 은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김지혜(godiso12)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남희(tonho5155) 어디에 앉아도 주님의 안아주심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윤미경(skyumber99)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시고,  
승은(alley91) 지난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고통의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고 낭비한 시간들까지 회복시켜주셨습니다. 박유선(sunnylove916) 하나님을 더 알고  
기성훈(eleceen) 막힌 길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조급함보다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며 순종하겠습니다. 이하나(gksk7541)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대로 사는 삶을  
습니다. 김지영(y31026) 막힌 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동의(sarang) 하나님은 막힌 길에서 제게 영적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새 마음, 새 영도 주옵소서. 남혜원(hannah96) 제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조명은(lalla333)  
했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으로 교만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손유영(yson7) 오늘까지 들은 모든 말씀과 간증들을 모으면 한 줄기가 되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합니다.  
기를 결단합니다. 성낙훈(tazhika) 전직위탁의 자세로 순종할 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유하(bobae0507) 강씨 집안 예수 믿는 모임 카톡방을 몇 달 전부터 만들어 열흘씩  
임목사님께서 헌신하신 그 수고가 아니라면 이러한 은혜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아린(Romans839)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a74) 주님, 오늘도 제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김태영(morog) 특색의 은혜가 가득한 사랑의교회 안아주심의 본당은 홍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이제껏 주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정지인(injeong) 오늘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늘 문, 땅의 문, 닫힌 문들이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조다혜(hcho) 홍혜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제게는 어떤 창조적일 일을 행하시며 인도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최홍석(blowfish82)  
기쁨 넘칠 것을 믿습니다. 구혜윤(nine623) 막힌 것은 길이 아니라 어쩌면 내 생각과 시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최소정(sisarang) 주님께서 보내주신 저의 양들에게 꼭 필요한  
한은이(dong0080) 가을 특색에 변함없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현덕(alleuia) 모든 기도제목이 응답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고은(cke78) 날마다 주시는  
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찬호(chanho70)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 할 때 나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써 내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주제는 “깊은 말씀과 높은 찬양, 뜨거운 기도로 거룩한 부흥의 공진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넘어 열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입니다.

## 강단초대

\*오늘: 각 부서 찬양팀

## 주차안내

• 교회주차장 •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토: 3시-9시30분까지  
• 서초현대주차장 토: 3시-9시30분까지 • 국제주차장 토: 3시-9시30분까지

## 은혜게시판 활용

특새 때 받으신 은혜를 '은혜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1,700번 작성자분들께 후집회 이후 남1층로비에서 '특새굿즈'를 드립니다.



## 제24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특새 감사헌금'

제24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은 '특새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하여 주일예배 시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특새 개근 선물' 및 '기쁨의 잔치' 안내

'내 영혼의 풀 콘서트' 이후 남측 1층, 북측 1층 로비로 특새 개근 출석부를 가져 오셔서 제24차 '특새 동판'과 교환해 가시기 바랍니다(각 가정당 1개). 이후 사랑글로벌광장에서 따뜻한 어묵과 회오리감자(주일학교)가 <기쁨의 잔치>로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모여 풍성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은혜게시판

기록하는 한 사람이 기록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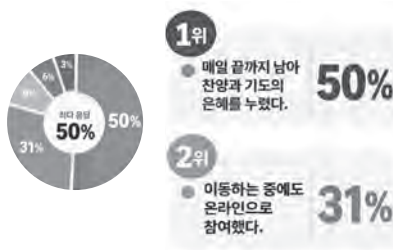
## 성경 년센스

1. 세상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2.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합이 66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총 '몇 글자'로 되어 있나요?

## 양케이트 결과

역시, 사랑의교회 특새대!  
라고 느낀 순간

특새 후집회,  
나는 이렇게 참여했다!



## 2026 가을 특새 출석부

여섯째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제 312호 주후 2026년 10월 24일(토)  
발행인 오정현  
기획 특새 TFT, 커뮤니케이션실  
발행처 사랑의교회 www.sarang.org

## INVITATION

WORLD  
REFORMED  
FELLOWSHIP

제7차 세계개혁신의협의회(WRF) 서울총회  
수요저녁연합예배

은혜의 자리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주후 2026년 10월 28일 (수) 오후 7시 15분  
안아주심의 본당



## 블레싱타임

“성도님은 하나님의  
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 기쁨의 잔치

